농촌에서 제2의 인생 만들어 볼까!

귀농은 자신의 삶을 자연친화·생태적으로 바꾼다는 것

오귀열씨의 '귀농학교 졸업기'

지난 5월부터 광주·전남 귀농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직접 밀을 수확해 탈곡을 하는 등 농사짓는 법을 익히고 있다. 〈광주·전남 귀농학교 제공〉

요즈음 믿고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흙은 농약에, 제초제에 병들어 가고 거기에서 나온 농산물은 믿고서 먹을 수가 없다고들 한다. 이런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재배해서 만들어 먹으면 된다. 바로 귀농을 말하고자 함이다.

귀농은 단순한 농촌으로 삶의 자리를 옮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가는 삶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광주·전남 귀농학교에 입학했다. 귀농학교는 귀농하는 시민을 위한 곳이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고 농사에 대해 관심있는 시민에게도 도움을 주는 곳이다. 2개월간 자연이 주는 수많은 기쁨과 혜택은 귀농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수입이었다.

현장 수업의 일환으로 녹색농촌체험 마을로 선정된 화순군 이서면 안심마을에서의 뽕나무밭 일손도와주기 체험과 청풍면 한지리에 있는 공방에 가서 농민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허심탄회한 시간 속에서 아름다운 또 하나의 생명의 터전을 일구고자하는 창조적인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와 삶의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다보니 생명경시 풍조와 환경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생존위기와 인간성 파괴라는 병리현상이 날로 심화되어 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생명의 모태인 흙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의 불안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물질가치 중심에서 생명가치 중심으로, 대립과 분열, 경쟁과 갈등의 구조에서 조화와 일치, 협동과 화해의 구조로, 쓰고 버리는 삶이 아니라 물건을 소중히 여기며 다시 쓰는 삶으로, 그래서 죽임과 단절의 문명에서 상생과 순환의 문명으로 새롭게 바꾸어 내야 하는 것이다.

누가 이 일에 나서야 하는가. 누군가는 이 의식적인 창조사업에 동참해야만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다.

농촌으로 귀농하는 것은 단순히 농촌에서 산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자연친화적, 생태적으로 새롭게 바꾼다는 의미로서 곧 새로운 삶의 선택인 것이다.

나주시 동강우체국장으로 8년 전 은퇴한 나로서는 귀농도 하나의 새로운 삶이다.

귀농학교에서 배운 농사와 관련 전반 지식과 경험은 이후 귀농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내가 먹을 음식은 내가 직접 재배해 먹을 때의 행복감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카톨릭 선교사로 활동하는 아내와 함께 귀농해 알콩달콩한 남은 삶을 자연과 함께 하고 싶다.

뿐만 아니라 생명농사를 실천하는 이들에게 적은 것에서 행복을 나누고 살아가는 생명운동가들이라 이름을 붙여주고 싶다.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은 분명 건강한 삶이다. 풍족함 속에서 병들어가는 세상에서 가치를 두고 서로 서로 나누고 살아가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싶고 그들을 존경한다.

그들은 아름다운 삶을 찾아서 떠나는 행복의 파수꾼들이기에…

오귀열

〈광주·전남귀농학교 15기 졸업생〉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

광주도시철도공사 용산기지 직원들 철로 위 '종달새 알' 부화 성공시켜

저는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홍보팀에 송현주라고 합니다.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에 작지만 소중한 사연이 있어 독자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중순 광주시 동구 용산 차량기지 구내 입환 차량용 선로 가운데에 종달새가 철로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았습니다. 이를 본 직원들이 종달새 알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알을 옮길 경우 어미가 알을 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대로 두고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직원들은 비상수단으로 "차량 입환 업무는 다른 선에서 하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표지판을 만들자", "소음이 많을 것 같은데 건강하게 태어나길 빈다", "순회 중 밟지 않도록 장소를 가르쳐 달라"는 등 애정어린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직원들의 성원과 신호용산분소 윤영관 과장의 정성러린 보살핌 덕분인지 종달새 알들은 성공적으로 부화했다고 한다. 천만 다행일 수 없습니다.

생태계의 보고 용산기지, 그리고 그곳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려는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관심을 엿볼 수 있는 흐뭇한 이야기입니다.

종달새 알 하나라도 소중히 아끼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한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시민을 향한 안전의식은 두말할 여지 없을 것입니다.

〈송현주·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홍보팀〉

독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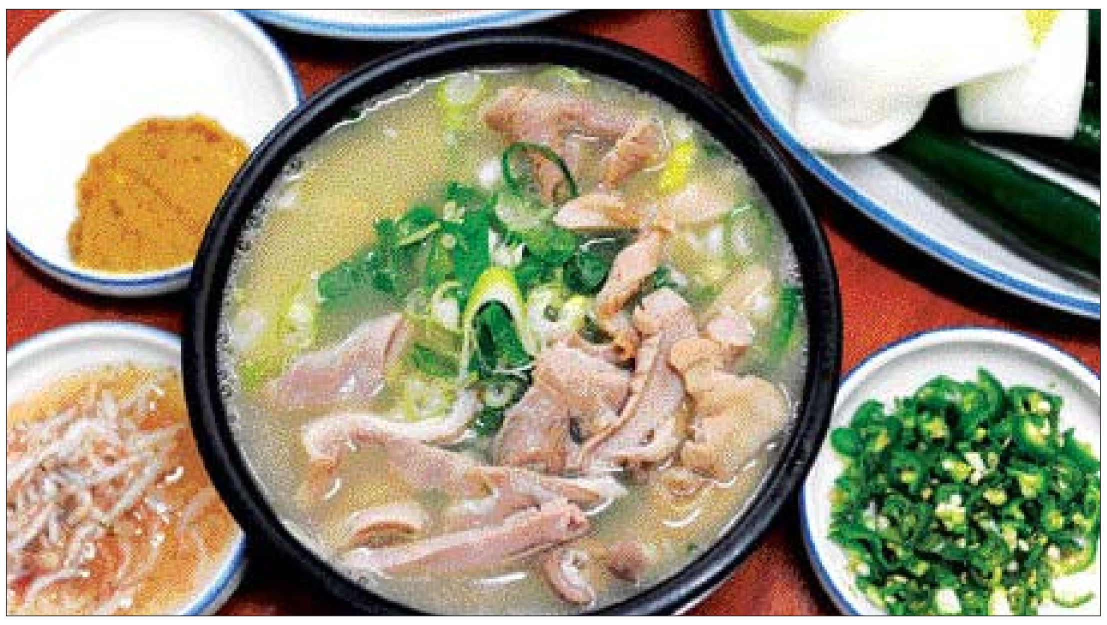
'독자와 함께'는 우리 고장 기네스, 이웃 미담, 공동체 생활, 삶터 자랑, 추억의 사진 등을 보도하는 열린마당입니다.

'솜씨자랑'에 실릴 시, 수필, 편지글, 사진 등 투고도 받습니다.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독자와 함께' 담당자 앞.

팩스 062-222-4937. e-메일 opinion@kwangju.co.kr.

클릭! 맛집



"주모 여기 국밥 한그릇 주오!"

가마솥이 펄펄…그곳엔 그리운 맛이

■광주 소태동 '모아원조국밥'

"문득 국밥집에 들어와 석유난로에 얹는 손들을 보면 닮았다 /쭈그러진 손등의 주름이 같고 손바닥에 박힌 못이 같다" 신경림의 시 '손'의 일부다.

돼지 뼈를 푹 고은 육수에 돼지 내장을 넣어 뜨겁게 내오는 국밥은 서민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던 대표음식이다. 고단한 퇴근길, 증심사 가는 길목 동구 소태동 신용협동조합 건너편 '모아원조국밥'(주인 최정자)집에는 허한 가슴 넉넉히 다독여 줄 돼지국밥 한 그릇이 하얀 김을 내며 끓고 있다.

30여 년 동안 식당을 운영한 주인장 최씨의 손맛이 밴 옛날국밥(돼지국밥)이 주요리인데, 이미 입소문이 나서 식사 시간에는 10개 남짓한 탁자를 차지하기 힘들 정도이다.

맛의 비결은 싱싱한 재료와 은근한 불에 우려낸 국물에 있다. 고기는 그날 잡은 돼지 위, 염통, 곱창만을 골라 쓴다. 다른 내장에서는 잡냄새가 심해 전혀 넣지 않는다.

또 이들 부위에 붙은 기름 덩어리를 손으로 직접 떼어내 국물이 더욱 개운하다. 흔히, 돼지국밥은 기름이 많이 떠 여성들이 꺼려하지만 이 집 국밥은 기름이 먹기 좋을 정도만 뜬다.

모든 재료는 밀가루를 풀어 말갛게 씻어내, 내장 특유의 냄새도 덜 난다. 고기는 쫄깃쫄깃한 맛을 살리기 위해 1시간20분만 삶는다. 많이 삶으면 고기가 질기고, 덜 삶으면 고기의 씹는 맛을 느낄 수 없다.

진한 맛을 내려고 이 집 솥단지는 쉴 틈이 없다. 무릎뼈를 30분가량 삶다가 깨끗한 물에 씻어 핏물을 빼고, 다시 12시간 이상 끓여 국물 맛을 낸다.

영광에서 가져오는 고추와 새우젓 등 10여가지를 넣는 '고추다대기'를 살짝 풀어서 먹으면 더욱 감칠맛이 난다. 매운맛을 원하면 함께 나오는 잘게 썬 청양고추를 넣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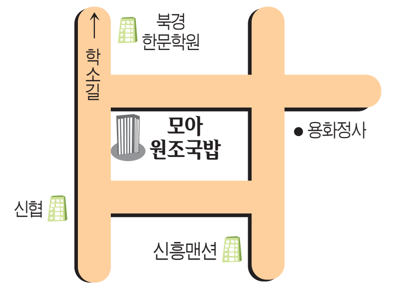
돼지머리국밥에는 살짝 기름이 많고, 씹는 맛이 살아있는 암뽕순대와 새끼보를 곁들이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숨은 맛집을 찾는 것은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만큼이나 힘들다. 이 집은 학동 평화맨션에서 소태동 모아미래도아파트로 가는 소방도로 접어든 뒤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 한다. 옛날국밥 5천원, 암뽕순대 1만원, 새끼보 1만원. 문의 062-234-0510. /오광록기자 kroh@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곱창전골〉

■찾아가는 길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핸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빌딩(임대용, 투자용)
• 토지600평 건물1,350평(매가 85억) 보증금 37억/월세3,300만원 융자 12억
• 토지1200평 건물 2,500평(매가 90억) 보증금 7억/월세 8,000만원 융자 50억
• 토지590평 건물 750평(매가 98억) 보증금 40억/월세 2,000만원 융자 12억
▶토지(상무지구 상업지역)
(회사사옥, 병원, 학원, 기타부지 등)
• 834.5㎡(250평) - 매가 평당 1,300만원 (플럼버스극장과 메가박스 중간사거리카도)
• 611㎡(185평) - 평당 680만원 (상무 우리들 병원 주변)
▶기타용도
• (농장) 그린벨트 73,000㎡(2만2천평) 평당 10만원 (동산동) 장기투자로 좋은 곳
• (녹지)삼각동 약 3,000평 평당 300만원 -고려고주변(마트, 예식장 등 적합)
▶호텔, 모텔
• 상무지구 객실 35개 직영(매가 28억) (2층 유흥주점 보증금 3000만/월 450만원)
▶사무실(상무지구 상무주변)
• 세정아울렛 옆 사무실 150평 매매가 평당 400만원
• 현금 45억 투자로 월수1억 가능한 모텔 및 호텔 운영상담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번영 공인중개사
☎062) 531-4665
동림2지구 동림병원앞
모 텔
※수익성 좋은 물건 다량 확보※
▶신축모텔(매매,임대)◀
매매 10억~35억선
(융자안고 3~20억투자)
임대 : 보증금3억~7억
월 : 800~2500만원선
▶무인모텔(매매,임대)◀
매매 : 20~50억
(융자안고 10~20억투자)
임대 : 보증금4~7억
월 : 1000~3000만원
▶일반모텔(매매,임대)◀
매매 : 4억~30억원
(융자안고 3~10억투자)
임대 : 보증금1억~4억
월 100~1500만원
▶대중사우나(매매,임대)◀
매매 : 4억~50억선
(융자안고3~20억원)
임대 : 보증금1억~4억원
월200~1000만원
▶고시원(매매)◀
매매 : 5억~12억선
(융자안고 3~7억원)
※매매.매수.임대.임차 물건접수합니다.

국민공인중개사
☎ 핸 011-635-7939, 010-2810-6103
(공시지가 이하 및 급 매물 중개 전문)
공시지가2억매매가1억2천만원
▶상업지역 130P 삼각동
분양가8억아파트1300세대상가매매가2억5천
▶35m도로 접 1층 상가 건물 약 100p 땅 지분 93p 한의원 내과 적합
공시지가+건물과표6억매매가3억5천
▶현재 한의원 경영 중 대 130p 건 230p 상업지역
공시지가+건물과표7억매매가4억2천
▶대 100p 건 300p 상업지역
상업지역땅약95p공시지가3억5천매매가2억4천
▶30m 도로 접
감정가3억8천매매가2억
▶장성 대 270p 건 180p
▶1층 점포 6칸 별도 주택 2동
▶ 2층 사무실
32억빌딩급매
▶대 200p 건 450p
▶보 8억원 월2350만원 융 13억포함
감정가45억매매가24억5천
▶빌딩급매대지500p건평1000p지하1층, 지상5층전체공실
화순주유소급매
▶대 600p 세차시설 카센터 주유기 12대
▶매 12억 융자 6억포함
화순,절터,요양원,별장부지
▶9500p 현재 황토방 창고관리실
▶주택조경수 식재 딱 4억5천
▶59억 빌딩 대 1000㎡ 건 5500㎡ 보증금 20억 월세 4천 융자 15억 포함
▶장성 임야사슴목장,별장 100000p 4억7천
공시지가+건물과표 15억
대 300p 건 350p 매매 11억

경매전문회사
HK (주)호남경매컨설팅
무료상담 ☎ 062)228-6600 H.P 010-5616-8988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 (2층)
(법원·검찰청 정문앞, 광주은행 맞은편 2층)
"23년 역사의 경매전문회사"
▶유치권, 법정지상권등 정확한 권리분석
▶통계자료와 시세분석에 의한 최적의 낙찰가 제시
▶제1,2금융권을 통한 최저금리로 부족한 경락잔금 대출알선(낙찰가의 50%~80%)
▶소유주, 임차인들의 신속한 명도(이사)
☎~ 지금 전화 주십시오!
전국 3만여건의 경매물건 중에서 원하시는 경매물건을 찾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